

봄, 너에게. 꽃을. 던진다



어느새 3월이다 • 눈이 비로 바뀌면서 얼었던 땅이 녹고,
따뜻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절기가 된다는 우수도 지났다 • 겨울 내 차가운 바람이 잦아드느라 싶더니 여
기저기 울긋불긋 꽃이 피고 있다 • 꽃이 땅에서만 피라는 법은 없다 • 책 속에 핀 꽃들을 만나보자 **★**

글·구성 강경희 기자




● 솜양지꽃

전국의 낮은 구릉지 등에서 자라는 장미과의
여러해살이풀이다. 4월에 꽃이 핀다. 가냘프게 보이
지만 제법 오랫동안 피는 꽃이다.



● 처녀치마

백합과의 꽃으로 산의 음지에서 흔히 자란
다. 봄에 일찍 피는 꽃 가운데 하나다. 꽃잎 같은 치
마폭을 펼쳐 놓은 듯한 꽃이다.

( 《집에서 기르는 야생화》
글. 사진 김태정 | 대원사 | 120쪽 | 값 4,800원)




● 노루귀

전국의 산 숲속에서 피는 꽃이다. 잎이 돌아
나올 때 약간 말리고 흰 털이 있으며 노루귀를 닮았
다. 3월에 피기 시작한다.



● 머위

국화과로 노란색이 도는 초록색을 가졌
다. 3월에서 5월까지 꽃이 핀다. 풀을 건드리면 냄
새가 난다.

( 《쉽게 찾는 우리 꽃》 | 봄 |
글. 사진 김태정 | 현암사 | 244쪽 | 값 12,000원)

수선화

수선화의 꽃말은 '자만', '자존심'이다. 이른 봄 양지바른 곳에서 피어나기 시작한다. 은은하면서도 진한 향기를 가졌다.

제비꽃

봄과 희망을 상징한다. 제비꽃이라는 이름은 남쪽나라에서 제비가 올 때쯤 꽃이 핀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.



《Flower & Tree》

마리안네 보이헤르트 지음 | 마리아-테레제 티르미어 그림
| 이은희·전경화 옮김 | 울유문화사 | 368쪽 | 값 20,000원



● 깡깡이풀

가을이나 겨울엔 숨어 있다가 봄에 느닷없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꽃이다. 아름답지만 꽃이 빨리 진다. 점차 사라져가는 희귀식물이다.



● 산자고

비옥한 숲 가장자리, 혹은 숲과 연이은 들판에서 이른 봄의 햇살을 받으며 자란다. 꽃잎 속의 셋 노란 수술이 두드러져 전체적인 모습이 참 곱다.



《한국의 야생화》

이유미 지음 | 다룬세상 | 552쪽 | 값 40,000원



● 동강할미꽃

우리나라 동강에서 서식하는 특산종이다. 바위 틈에서 자란다. 이 꽃은 개화시 여느 할미꽃들이 고개 숙인 것과 달리 하늘을 향해 핀다.



● 애기금매화

산 속 시냇가에서 자란다. 눈과 강풍 속에서도 피는 노란색 들꽃이다. 백두산, 낭림산, 부전고원, 포태산 등 고원지대의 습기가 있는 초원지에서 자란다.



《봄여름가을겨울 야생화 일기》

송기영 지음 | 이영노 감수 | 진선출판사 | 182쪽 | 값 20,000원